

중국의 조선어문시험 평가방식의 실태와 특성

—《2002년 보통고등학교초생전국통일고시조선어문》(길림성전용)을 중심으로—

김호웅*

1. 들어가는 말

중국에서는 1966년 대학 입학시험을 취소했다가 1978년에 재개하였다. 올해는 대학 입학시험을 재개한지 25년이 된다.

중국 조선족고급중학교를 나온 수험생들은 《조선어문》시험으로 중국인들이 치르는 《어문(語文)》 시험을 대체할 수 있으나 《조선어문》 외에 《한어문(漢語文)》 시험을 더 치러야 한다. 결국 《조선어문》 과 《한어문》 — 이 두 가지 시험성적을 합쳐서 그 2분의 1을 취한 것이 조선족고급중학교 수험생들의 어문 점수가 된다.

중국에는 《혹색의 7월》 이요, 《천군만마가 외나무다리를 건너네(千軍萬馬過獨木橋)》 라는 신조어도 있지만 아무튼 《보통고등학교초생전국통일고시 조선어문》 은 조선족고급중학교 졸업생들에게 있어서도 대학교의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까지 12년 간의 조선어문학습과정의 총화이자, 입

* 중국 연변대학교

시교육의 선두가 된다. 뿐만 아니라 이 《조선어문》 시험은 국가의 통일 시험인 것만큼 기타 여러 차원의 《조선어문》 시험에 비해 신빙성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물론 이 《조선어문》 시제는 중국 교육기관의 선발, 위촉을 받은 전문가들에 의해 비밀리에 출제·책정된다.

이 글에서는 《2002년 보통고등학교초생전국통일고시 조선어문(길림성 전용)》을 중심으로 그 평가방식의 실태와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출제 양식과 평가 기준

《2002년 보통고등학교초생전국통일시험-조선어문》(길림성 전용)은 제1시험지와 제2시험지로 나뉘어진다. 논의의 편리를 기하고자 출제양식을 그대로 소개한 다음 해석, 평가하기로 한다.

제 1 시험지

1. (매 문제 3점, 도합 42점)

평가 내용은 언어지식과 언어표현능력 및 문학상식이다. 다양한 성격의 단어, 성구, 속담, 수사법 등을 정확히 사용하는 능력과 기타 문학상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1) 다음의 문장들에 쓰인 밑줄을 그은 단어들의 사용정확여부를 밝힌 데서 정확한 것은

- ① 양철지붕에 널판지로 앙상하게 지은 조그마한 레배당은 비만 오면 천장이 샌다.
- ② 식민주의강도들은 토착민들을 살육하고 항복시킬 때 그들을 꿇어앉

히고 머리에 흙을 뿌려엿는 의식을 거행하였다.

③ 친정집 부모들이 애써 말린것이 무리는 아니였구나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다.

④ 벌써 날이 새는듯 바다 먼 상봉우리들이 물끄러미 밝아왔다.

⑤ 우리 가정으로 말하면 오늘은 자못 뜻깊은 날이다.

A. ①, ②는 틀리고 ③, ④, ⑤는 맞다.

B. ①, ④는 틀리고 ②, ③, ⑤는 맞다.

C. ①, ②, ③은 맞고 ④, ⑤는 틀린다.

D. ①, ②, ③, ④, ⑤가 전부 맞다.

[답안] B

[해석] 이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능력 차원은 B급이다. ①에서 <<앙상하다>>는 형용사는 작은 물체를 형용하는데 쓰이는데 예배당과 같이 큰 건물을 형용하는데 쓰였으므로 정확하게 사용되지 못했다. ④에서 <<물끄러미>>는 주로 인간이나 동물이 우두커니 한곳만을 바라보는 모양을 표현하는 부사인데 상봉우리들이 밝아오는 모습을 수식했으므로 역시 정확하게 사용되지 못했다. 보다시피 이 문제는 단어의 미세한 의미의 차이를 갈라 보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보다 높은 언어적 감각을 요하고있다.

2) 다음의 문장들의 빈자리에 차례로 써 넣을수 있는 가장 정확한 상정 부사뭉침은

① 누가 보는것만 같아 가슴만 _____ 뛰었다.

② 그러면서도 때로는 무언가 찾는듯 _____ 사위를 살폈다.

③ 그 말을 들은 우리의 가슴속에서는 분노의 감정이 _____ 피어올랐다.

④ 책속에 골몰하다가 밖에 나오니 봄바람이 _____ 옷깃을 스친다.

A. 쿡쿡, 두런두런, 바질바질, 슬멏슬멏

B. 황황, 등글등글, 부실부실, 슬렁슬렁

- C. 쿵쿵, 등실등실, 보글보글, 살쩍살쩍
- D. 쿵쿵, 두릿두릿, 부글부글, 살랑살랑

[답안] D

[해석]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상징부사들을 문맥에 맞게 정확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능력차원은 D급이다. ①의 경우는 《쿵쿵》은 날카롭고 단단한 물건으로 여무지게 찌르거나 찍거나 박는 모양이요, ②의 경우는 무겁고 단단한 물건이 단단한 바닥에 떨어지거나 부딪쳐 크게 울리어 나는 소리요, ③의 경우는 단단한 바닥에 작고 무거운 물건이 떨어지거나 부딪쳐 울리는 소리요, ④의 경우는 ①, ②, ③과 같은 본의를 가짐과 동시에 복이나 대포 따위의 소리가 크게 울리는 소리라는 전의(轉義)도 가지고있으므로 정확한 답안은 D이다. ②, ③, ④의 경우 답안은 더욱 분명해진다. 이 문제는 상징부사들의 미세한 의미차이를 갈라 사용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으나 그 의미적 색깔이 분명하고 답안 배열 또한 일목요연해 쉽게 해답할 수 있다.

3) 다음 문장들의 빈자리에 차례로 써 넣을수 있는 가장 정확한 조선말 성구류음은

- ① 예정보다 앞당겨 떠나다 보니 애들을 다시 만나지 못하고 가는 것이 ____.
- ② 당의 정책 덕분에 이젠 우리도 _____ 다닐수 있게 되었어요
- A. 마음에 걸리다, 머리를 쳐들다 B. 마음에 있다, 머리를 모으다
- C. 마음에 차다, 머리를 내밀다 D. 마음에 쏠이다, 머리를 식히다

[답안] A

[해석] 우리말 성구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능력 차원은 C급이다. ①의 경우 《마음에 걸리다》는 꺼림칙하여 마음이 아니 놓이다, 안심이 안 된다는 뜻을 갖고있기에 정확하게 사용한 것으로 된다. 《마음에 있다》는 문장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바 우리말 성구가 아니다. 동일한 뜻으로 《마음에 들다》라는 조선말 성구가 있다. 《마음에 차다》는 만족하다는 뜻이며 《마음에 쏠이다》는 짐작이 가다, 예감이 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② 경우 《머리를 쳐들다》는 힘을 얻어 존재를 드러내다, 일어나다는 뜻을 가지고있기에 정확하게 사용한 것으로 된다. <

머리를 모으다》는 의논하기 위하여 가까이 모이다, 지혜를 합치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머리를 내밀다》는 어떤 자리에 모습을 나타내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머리를 식히다》는 휴식하다, 마음이 안정되게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말 성구를 많이 알고 그 의미를 살려 정확하게 쓰고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말 실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4) 다음 문장들에 쓰인 밑줄을 그은 성구, 속담들의 사용정확여부를 밝힌데서 정확한 것은

- ①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것처럼 밤낮 쉬지 않고 정성들여 간호한 탓인지 어머니의 병은 차차 호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 ② 뜨거운 떡약별에 잔디발은 온통 풀이 죽어 스산하기 그지없었다.
- ③ 쌀독에 거미줄을 칠 가정형편에 어떻게 너를 대학공부까지 시킨단 말이나?
- ④ 웬일인지 아침부터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아프다.
- ⑤ 언제나 안하무인이 되어 남을 깔보더니 이번에 특특히 망신을 잘 당하는군.

- A. ①, ②는 틀리고 ③, ④, ⑤는 맞다.
- B. ①, ③, ④는 맞고 ②, ⑤는 틀리다.
- C. ①, ③, ⑤는 맞고 ②, ④는 틀린다.
- D. ①, ②, ③, ④, ⑤가 전부 틀린다.

[답안] C

[해석] 우리말 속담과 성구들을 정확하게 식별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개중에는 중국어에서 온 안하무인(眼下無人)과 같은 성구도 있어 한결 수험생의 높은 언어자질을 요한다. 능력 차원은 B급이다. ②의 경우 《풀이 죽다》는 활기나 기세가 꺾이어서 맥이 없다는 뜻으로 씌우는 우리말 성구이므로 폭염에 시들어버린 잔디발을 표현하는데 사용할 수가 없다. ④의 경우 《가슴이 아프다》는 마음이 쓰라리다, 딱하고 애뜻하다는 뜻을 담은 우리말 성구이므로 여기서는 성구로

쓰인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아픔을 표현하는 주어와 술어의 결합형태로 쓰여졌다. ②의 경우와 같이 우리말에 고유한 성구를 단순한 주어와 술어의 결합 형태로 착각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④의 경우와 같이 심리적 상황이나 아니면 육체적 상황이나, 아무튼 진술 대상에 따라 문장 속에서 정확하게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있어 수험생의 우리말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문제가 된다.

5) 다음 문장에 쓰인 <발을 빼다> 와 같은 뜻으로 사용된 <발을 빼다> 가 들어간 문장 두 개를 찾는다면

그 자리에서 그만큼 해먹었으면 이제 발을 빼고 물러나게.

- ① 수라장으로 변한 놀이터에서 간신히 발을 빼여 나올 수 있었다.
- ② 뜻하지 않은 타격에 런머칠 정신이 흐리멍텅해 있던 그는 심리자문 의사를 보이고나서야 고민속에서 발을 뺄수 있었다.
- ③ 지배인 노릇을 잘 하려면 기회를 보아 발을 뺄줄 아는 지혜도 길러야 하는거야.
- ④ 이번 밀수 사건에는 적지 않은 지도간부들도 직접 참여하였기에 어느 일방도 쉽게 발을 뺄 엄두를 못내고있었다.
- ⑤ 며칠동안 련차를 탔더니 발이 통통 부어올라 도무지 신발에서 발을 뺄수가 없었다.

[답안] D

[해석] 역시 우리말 성구를 정확하게 식별, 사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능력 차원은 D이다. <발을 빼다> 는 어떤 일에서 관계를 완전히 끊고 물러나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우리말 성구이다. ①의 경우 우리말 성구가 아닌 주어와 술어의 단순한 결합형태로 되었고 ②의 경우 심리적인 상황에 사용해 무리를 빚고있으며 ⑤의 경우 역시 우리말 성구가 아니라 단순한 주어와 술어의 결합형태로 볼 수 있다. ③과 ④는 해당 성구의 의미를 살려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앞의 문제 4)에 비해 내용은 평이하나 출제 형식은 새롭다.

6) 다음 문장들에서 비유법으로 볼수 없는 것을 두 개 지적한다면

- ① 한 대 언어맞은 듯 땡해졌던 영애는 이윽고 울음을 터뜨리고야 말았다.
- ② 품좁은 외투와 중절모로 하여 그들은 마치도 한쌍의 광대놀이군과도 같았다.
- ③ 바다속의 승냥이무리는 구축함을 선두로 흰 물살을 더욱 거칠게 울리며 가까이에 퍼져 다가왔다.
- ④ 그는 티끌만한 흠집도 없는 새끼양처럼 조용히 천당으로 올라갔다.
- ⑤ 인생길은 순탄한 아스팔트길이 아니라 험난한 가시덤불길이다.

- A. ①, ③ B. ①, ② C. ②, ⑤ D. ③ ⑤

[답안] B

[해석] 여러 가지 수사법을 분별하고 구사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능력 차원은 B이다. ①에서 《한 대 언어맞은 듯 땡해지다》와 《영애》는 그 표식을 지닌 대상이 모두 같은 대상이므로 직유가 아니다. ② 역시 비교의 표식에 있어서 본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직유가 아니라 단순한 보통비교이다. 이 문제는 수사학적 비유와 단순한 보통비교를 구별해야 하기에 수험생들에게 한결 판단의 어려움을 더해 주고있다.

7) 다음 글의 빈자리에 써넣을수 있는 가장 합당한 구절은

사실 적막감속에서 사람은 진실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적막감속에서 사람들은 단련을 받고 사상감정의 승화를 가져올수 있다. 경우에 따라 적막한 환경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 모종 의미에서 말하면 사업에서 성과를 따낸 사람들은

- A. 왕왕 제일 재능이 있으면서도 제일 잘 적막감을 견디여낼줄 아는 사람들이다.
- B. 왕왕 적막감을 제일 잘 견디여낼뿐만아니라 또 제일 재능이 있는 사람이다.

- C. 왕왕 제일 재능이 있으면서도 우선적으로 적막감을 제일 잘 견디어 낼 줄 아는 사람들이다.
- D. 왕왕 제일 재능이 있는 사람인 것이 아니라 적막감을 제일 잘 견디어 낼 줄 아는 사람이다.

[답안] C

[해석] 글의 중심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기초해서 추리, 개괄, 판단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능력 차원은 C급이다. 이 글에서 <<적막한 환경>> 과 <<재능이 있거나 성과를 따낸 사람>> 은 선후의 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이룬다. <<경우에 따라 적막한 환경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참고 답안 C의 <<우선적으로>> 라는 단어에 주의를 돌려야 하고 정확한 답안을 C로 잡아야 한다. 수험생의 논리적인 사고력과 판단력을 가늠할 수 있다.

8) 다음 글의 쉬갈린 순서를 옳게 바로 잡아놓은 한조는

① 그렇게 청정하고 유구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들을수 있는것은 그 둘에다 애정어린 관심을 쏟기 때문이다. ② 애정은 신비로운 작용을 한다. ③ 수석을 채집하는 사람들은 내가에서 주어진 한 개의 돌과 마주앉아서 그들이 말해주는 원초세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④ 얼어붙은 인간 관계를 녹이고 이 세상을 기쁘고 살기 좋은 락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애정이 있어야 한다. ⑤ 같은 돌이라도 대하는 사람에 따라 아무런 의미가 없을수도 있고 우주의 진리를 들려줄수도 있다. ⑥ 애정을 쏟으면 돌이 말을 하고 썩은 나무등걸에서 움이 튼다.

- A. ④②⑥③①⑤
- B. ②④③⑥⑤①
- C. ③⑤⑥②①④
- D. ④③②⑤①⑥

[답안] A

[해석] 문장의 조직능력과 논리사유능력을 평가한다. 능력 차원은 C이다. ④는 총론점이고 ② 소론점이며 ⑥과 ③은 논거이며 ①과 ⑤는 논증에 속한다. 문장은 간결하나 내용이 충실하고도 명확해 쉽게 글의 쉬갈린 순서를 옳게 바로 잡을 수 있다.

수험생의 문장조직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문제이다.

9) 다음 문장의 표달방식을 차례로 옳게 지적한 것은

- ① 무심과 전심은 수화상극으로 창과 방패마냥 대립된다.
- ②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위대한 진군의 불바람속에서 그도 정녕 청춘을, 청춘을 되찾은것이리라!
- ③ 그는 등채를 들고 그 군졸의 얼굴을 마구 후려갈졌다.
- ④ 이 공장은 길이가 230미터이고 너비는 45미터이며 높이가 4—5미터인 대형평바닥강철배우에 건축되었는데 하루에 생산되는 팔프가 750통이다.
- ⑤ 옛날에 군자는 자신을 단속함에 있어서 엄격하고 세밀했다.
- ⑥ 남들이 하는 일을 생각하면 공으로 덕을 보려는 내가 얼마나 철없는지 모르겠다.

[답안] B

[해석] 여러 표현방식의 특성을 장악하고 그것들을 정확하게 구사하는가를 구체적으로 평가한다. 능력 차원은 D급이다. ①을 서술이나 설명으로 볼 위험이 있고 ⑥은 의론이나 서술로 볼 위험이 있어 수험생들에게 일정한 어려움을 주고있다.

10) 다음 복합문을 둘러싸고 단일문 사이의 관계를 따지고 복합문의 종류를 지적한데서 정확한것을 찾으면

①검은 구름이 몰려오는걸 보니 ② 비가 당금 쏟아질것 같지만
③물건너 산에 간 애들은 어이하여 상기 아니 오는가.

- A. 문장 ①과 문장 ②는 조건의 관계, 문장 ②와 문장 ③은 대립의 관계. 이 복합문은 종속복합문이다.
- B. 문장 ①과 문장 ②, ③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 문장 ②와 문장 ③은 대립의 3관계. 이 복합문은 합성복합문.

- C. 문장 ①과 문장 ②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 문장 ①, ②와 문장 ③은 대립의 관계. 이 복합문은 합성복합문.
- D. 문장 ①과 문장 ②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 문장 ②와 문장 ③은 조건의 관계. 이 복합문은 종속복합문.

[답안] C

[해석] 복합문 속에 있는 여러 단일문 사이들의 관계와 복합문의 종류를 구분케 함으로써 수험생들의 복합문을 다루는 능력과 논리사유능력을 평가한다. 능력 차원은 C급이다. 문장 ①과 ②는 서로 원인의 관계에 놓이는 동시에 그것들은 문장 3과는 대립의 관계에 놓여 있으며 또한 이 문장은 3개 이상의 진술단위들이 서로 다른 연결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합성복합문이다. 이 문제는 보다 복합문의 문장구조를 세밀하게 분석, 구분하며 다양한 복합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에 대해 평가한다.

11) 작가, 작품과 관련한 다음의 판단에서 정확한 것은

- A. 셰익스피어의 4대미국에는 《오셀로》, 《베니스상인》, 《로미오와 줄리엣》, 《햄릿》 등이 있다.
- B. 모순의 농촌3부곡에는 《봄누에》, 《추수》, 《립씨네 상점》 등이 있다.
- C. 리기영은 저명한 단편소설 《고향》을 썼다.
- D. 소련의 저명한 작가 오스트롭스끼의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는 청년들이 애독하는 장편소설이다.

[답안] D

[해석] 수험생들의 독서 범위와 문학상식을 평가한다. 능력 차원은 B이다. A에서 《오셀로》와 《베니스상인》 대신에 《리어왕》과 《맥베스》를 넣어야 하며 B에서 《립씨네 상점》 대신에 《늦가을》을 넣어야 하며 C에서 리기영의 《고향》은 단편소설이 아니라 장편소설이다. 이 문제는 영국, 중국, 조선, 러시아 등 동서고금의 작가와 작품들에 대한 비교적 폭넓은 문학지식을 갖추어야 해답할 수 있는 문제이다.

12) 다음의 시를 읽고 문학감상각도에서 맞는것을 찾으면

산에 산마다/날새 하나 얼신 않고
 길에 길마다/ 행인 자취 바이 없구나
 외로운 배에/ 도롱이 걸치고 삿갓 쓴 늙은이
 눈 오는 강 차련만/ 외홀로 고기 낚는다.

— 당조 류중원

- A. 낚시질에 아주 미친 늙은이의 형상을 생동히 그리었다.
- B. 생활난에 시달리는 늙은이의 가궁한 형상을 생동히 그리었다.
- C. 가정 불화로 인한 번뇌를 잊기 위하여 모지름을 쓰는 늙은이의 형상을 생동히 그리었다.
- D. 《산》과 《강》, 《행인》과 《늙은이》를 대비의 수법으로 잘 보여주었다.

[답안] B(“참고답안”에 근거함)

[해석] 중국 당시에 대한 이해를 평가한다. 능력 차원은 B급이다. 하지만 4개 답안에는 정확한 답안이 없다. 사실 이 시는 답안 B의 경우처럼 《생활난에 시달리는 늙은이의 가궁한 형상》을 그린 것이 아니라 눈오는 날의 적막한 강산이라는 의경을 빌어 속세를 멀리한 시인의 고고(孤高)한 정취를 표현하고 있다. 분명 참고답안이 잘못되었다.

13) 다음의 시조를 읽고 문학감상 각도에서 틀리는 것을 찾으면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고하니
 봉래산 제일봉에 락락장송(落落長松) 되었다가
 백설이 만건곤(滿乾坤)할제 독야청청(獨也靑靑)하리라

—리조초기 성삼문

- A. 이 시조는 평시조이다.

- B. 이 시조에는 폭압과 비행에 굴하지 않고 충의를 지켜가는 작자의 굳은 절개가 표현되었다.
- C. 이 시조는 비유의 수법으로 작자의 사상감정을 표현하였다.
- D. 이 시조에는 자기밖에 모르고 뽐내는 개인영웅주의사상경향이 다분히 표현되었다.

[답안] D

[해석] 우리의 전통문학과 시조 형식과 사상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를 평가하고있다. 능력 차원은 B이다. 풍부한 역사내용에 격조 높은 시조로 놓고 말하면 D가 틀렸음이 너무나 명확하다. 학생들이 직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나 아무튼 수험생들의 시조문학에 대한 상식과 이해의 깊이를 평가하고자 했다.

14) 다음의 언어환경에 맞는 말을 옳게 찾아 묶어놓은 한조는

- ① () 오너라. (조급하게)
 - ② () 오너라. (관심조로)
 - ③ () 오너라. (배척투로)
 - ④ () 오너라. (그리움에 젖어)
- ㄱ. 갈라진지도 어언간 3년이 되었구나.
 ㄴ. 앓는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가볼수 없었구나.
 ㄷ. 너만 오면 이가 갈린다.
 ㄹ. 할아버지가 운명하신다.

- A. ① — ㄷ ② — ㄴ ③ — ㄷ ④ — ㄱ
- B. ① — ㄴ ② — ㄷ ③ — ㄱ ④ — ㄷ
- C. ① — ㄷ ② — ㄱ ③ — ㄷ ④ — ㄴ
- D. ① — ㄱ ② — ㄷ ③ — ㄴ ④ — ㄷ

[답안] A

[해석] 언어환경에 어울리는 우리말의 억양과 그 기능에 대한 이해와 실천 능

력에 대한 평가이다. 능력 차원은 D이다. 다양한 방안을 쓰고있는 조선족 수험생들에게 꼭 필요한 평가 조항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출제 형식이 너무 복잡하다는 느낌을 준다.

2. (매 문제에 3점, 도합 12점)

두 번째 부분에서는 과학기술상식에 관한 설명문의 독해능력을 평가한다. 중점적으로 해당 글 속의 중요한 구절을 찾아 이해, 해석하고 글 속의 정보를 선별, 개괄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다음의 글을 읽고 문제 15) —18)을 해답하라.

1980년 노벨상을 탄 알베르쯔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6400만년전의 어느날, 직경이 몇km 되는 천체가 지구와 맹렬히 부딪혔는데 이 충격파로 인해 대량의 삼림이 회멸되었다. 여기에서 생긴 두터운 먼지층은 태양을 가리웠고 이로하여 식물은 광합성작용을 진행할수 없었다. 연속 몇 년동안 지속된 이 돌발사태는 동식물의 먹물 래원을 완전히 끊어놓았다. 공룡의 무리죽음은 바로 이때에 생겼다. 그리고 한메터 두께로 땅에 내려쌓인 먼지층은 공룡의 시체를 완전히 덮어버렸다.»

그럼 이 견해는 어떻게 실증되었는가?

1980년대초 세계의 넓은 지역에서 6400만년전 공룡이 멸종될 때의 암석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이리디움원소가 풍부한 침적물이 있었다. 사실 지구의 표층에는 이리디움원소가 극히 희소하다. 과학자들은 이 대량의 이리디움원소는 소행성이 가져온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여기에 의문을 품었다. 얼마후 이리디움원소가 풍부히 매장된 지층에서 지구에는 있을수 없는 동위소, 미파운석과 충격석영이 발견되었다. 이런 물질의 존재는 6400만년전에 지구에 극히 비정상적인 사태가 일어났다는것을 재실증하였다.

후에 과학자들은 침적물속에서 지구에는 종래로 있어본적 없고 일부 다른 천체에만 대량으로 존재하는 아미노산을 발견하였다. 이 아미노산은 온도가 몇천도에 달하는 지구내부에는 존재할수 없는 것이다. 또 동일한 시기의 침적물속에는 탄소의 함량이 다른 시기보다 만배나 더 되었다. 이로부터 과학자들은 소행성의 충격력은 10억백만톤급에 달하여 3000F(화씨온도)의 큰 불덩이를 형성함과 아울러 치명적인 삼립화재를 유발함으로써 모든 생물이 죄다 다시 잿더미로 되어버렸다고 결론지었다.

이상의 추리로부터 과학자들은 재변론(再變論)에 대하여 흥미를 갖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재변론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공룡이 멸종될 당시 지구는 다른 천체의 거대한 충격을 받았다. 생물계에서 일어난 다섯 차례의 멸종사건은 외래물체의 강렬한 충격으로 하여 일어난 것이다. 2억년래 생물의 멸종은 일정한 주기성을 가진다. 이미 발견된 운석구덩이의 형성년대도 생물멸종발생의 시간과 동일한 주기성을 가지고있다.

15) 다음의 구절에서 밑줄 그은 단어가 가리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분석에서 맞는 것을 찾으시오

《그럼 이 견해는 어떻게 실증되었는가?》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여기에 의문을 품었다.》

- A. 전자는 천체가 지구를 충격할 때 식물이 훼손되고 공룡의 멸종을 초래하였음을 말하고 후자는 지구 지각내의 이리디움원소가 매우 희소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 B. 전자는 천체가 지구를 충격할 때 식물이 훼손되고 식물을 먹은 동물들이 무리죽음을 당하였다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대량의 이리디움원소를 소행성이 가져왔다는것을 가리킨다.

- C. 전자는 천체가 지구를 충격할 때 먼지가 태양을 가리워 식물이 죽었기에 이러한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 특히는 공룡도 먹을것이 없어 멸종되었음을 말하며 후자는 대량의 이리디움원소는 소행성이 가져왔다는 것을 가리킨다.
- D. 전자는 천체가 지구를 충격하는 바람에 식물이 죽고 식물을 먹이로 하는 동물도 먹을것이 없어 멸종되었다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대량의 이리디움원소가 지구내부에 극히 희소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답안] C

[해석] 주로 《이》, 《여기》와 같은 대명사가 지칭, 개괄하고있는 대상과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하고있느냐를 통해 글 속의 중요한 정보를 식별, 선택해 내는 수험생의 능력을 평가한다. 능력 차원은 B급이다.

이 글에서 대명사 《이》는 그 앞의 문장을 개괄하면서 알베르쯔박사의 견해를 가리키고있고 대명사 《여기》는 그 앞문장의 새로운 지질학적발굴 결과를 개괄하면서 이리디움원소는 소행성이 가져온것임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므로 C가 맞고 A, B, D는 틀린 것으로 된다.

16) 이 글의 제2자연단락에서 나오는 일련의 수자들의 역할을 분석한 데서 정확하지 못한 것을 찾으면

- A. 이러한 물질이 산생된 원인은 지구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밖 에 있는 소행성이 충격한 결과라는 것을 설명한다.
- B. 이러한 물질은 지구내부에서 산생되었고 원래 있을 수 없는 정황이 발생되었음을 증명할수 있다.
- C. 알베르쯔의 견해가 정확하다는 것을 설복력있게 증명할수 있다.
- D.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설복시키고 소행성이 지구를 충격하였다 는 새로운 재변리론이 믿음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답안] B

[해석] 이 문제는 중점적으로 글 속에 나오는 일련의 수치가 지니는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를 통해 글의 중심사상을 파악하고있느냐를 를 평가한다. 능력차원은 B급이다.

소행성의 충격력은 10억백만톤급에 달하여 3000F(화씨온도)의 큰 불덩이를 형성함과 아울러 치명적인 삼림화재를 유발하고 대량의 이리디움원소를 지구에 가져왔다. 그러므로 B의 진술은 정확하지 못하며 정답으로 된다.

17) 다음의 설명들에서 글의 원뜻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 A. 지구에서 발생한 생물의 멸종현상은 지구가 소행성의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 B. 일부 과학자들의 발견과 추리는 알베르쯔박사의 관점이 정확하다는 것을 진일보 증명하였다.
- C. 6400만년전의 암석의 침적물속에 탄소의 함량이 엄청나게 많은 것은 그 당시 소행성의 충격으로 지구에 채멸성적인 삼림화재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 D. 작자는 새로운 재변리론과 다윈의 물종진화리론은 모순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다.

[답안] D

[해석] 글 속의 중심 논점과 내용을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추정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능력 차원은 C급이다. 이 글 속에는 새로운 재변리론과 다윈의 물종진화리론이 모순된다는 진술은 없지만 새로운 지질학적 발견과 연구 결과를 미루어 상술한 양자는 모순되고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18) 새로운 재변리론의 성과를 모두어보면

- A. 한가지이다.
- B. 두가지이다.
- C. 세가지이다.
- D. 네가지이다.

[답안] D

[해석] 글의 요점에 대한 개괄 능력을 평가한다. 능력 차원은 C급이다. 이 글의 마지막 단락에 너무 분명하게 개괄, 명시되어 있으므로 쉽게 대답할 수 있다.

제 2 시험지

제2시험지에서는 문학작품에 대한 감상능력과 한국과 중국의 명작에 대한 수험생의 장악 정도와 문학감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3. (20점)

다음의 글을 읽고 문제 19) — 24)를 대답하라.(10점)

① 내가 아직 료동땅을 들어오지 못했을 무렵, 바야흐로 한여름의 띄약 별뿔을 지적지척 걸었는데 홀연 큰 강이 앞을 가로막아 붉은 물결이 산갈이 일어나서 끝을 볼수 없었다. 아마 천리밖에서 폭우로 홍수가 났었기때문이었다. 물을 건널 때에는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고있기에 나는 그들이 모두 하늘을 향하여 묵도를 올리고있으려니 생각했다.

② 물을 건너는 사람들이 세차게 돌아흐르는 물을 보면 굼실거리고 으르릉거리는 물결에 몸이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서 갑자기 현기가 일면서 물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 얼굴을 젖힌 것은 하늘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제 물을 피하여 보지 않기 위함이었다. 사실 어느 겨를에 그 잠간동안의 목숨을 위하여 기도할수 있었으랴!

③ 그건 그렇고 그 위험이 이와 같은데도 이상스럽게 물이 성나 울지 않았다. 배를 탄 모든 사람들은 료동의 들이 넓고 평평해서 물이 성나 울어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물을 잘 알지 못하는 가담에서

나온 오해인 것이다. 료하가 어찌 울지 않았을 것인가? 그건 _____ 낮에는 눈으로 물을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험한 곳을 보고 있는 눈에만 온 정신이 팔려 오히려 눈이 있는 것을 걱정해야 할 판에 무슨 소리가 귀에 들어온단 말인가? 그러나 이젠 전과는 반대로 밤중에 물을 건너니 눈에 위험한 광경이 보이지 않고 오직 귀로만 위험한 느낌이 쏠려 귀로 듣는 것이 무서워서 견딜수 없는것이다.

④ 아, 나는 이제야 도(道)를 알았도다. 마음을 잠잠하게 하는 자는 귀와 눈이 루가 되지 않고 귀와 눈만을 믿는 자는 보고 듣는 것이 더욱 밝아져서 큰 병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19) 이 글은 어느 작품에서 발췌한것이며 이 작품의 체제는 무엇인가?
(3점)

작자 _____ 작품 _____ 체제 _____

[답안] 작자는 박지원이며 작품은 《열하일기》(또는 “물”), 체제는 산문이다.

[해석] 이 글의 작자, 작품 제목, 체제 등에 대해 물음을 던짐으로써 수험자의 문학 상식과 지식 수준에 대해 평가하고자 했다. 민족고전에 대한 사랑을 키워준다는 점에서 주목되나 능력 차원은 C이다.

20) 다음의 구절은 글의 어느 자리에 넣어야 합당하겠는가?(1점)

그러나 오랜 뒤에야 비로소 알았지만 그때 내 생각은 틀린 생각이였다.

- A. 제②자연단락의 맨 앞 B. 제③자연단락의 맨 앞
C. 제④자연단락의 맨 앞 D. 글의 제일 마지막 답: ()

[답안] A

[해석] 과도를 주는 구절을 적절히 배치해 글의 논리성을 보장하는 능력을 갖추었는가를 평가하고자 했다. 능력 차원은 C급이다. 이 글의 ①과 ②는 결과를 먼저 제시해 현념을 조성하고 그 다음 원인을 설명했는데 상술한 과도어구를 넣어야 글의 논리성을 보장할 수 있다.

21) 제③자연다락의 빈자리에 글내용과 논리적으로 맞물리는 말을 써넣으라? (1점)

[답안] 밤에 건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석] 상하 문맥을 분석해 빈자리에 적당한 말을 골라 써넣을수 있는 추리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능력 차원은 B급이다. 빈자리에 뒤에 <<낮에는 눈으로 물을 볼수 있으므로...>> 라는 구절이 있으므로 낮에 본 상황과의 대비 속에서 밤에 본 상황을 그렸을 것이라고 추리할 수 있다.

22) 이 글의 제②자연단락에 나오는 <<숫제>>에 대한 다음 해석들에서 정확한것에 <<V>> 표를 치라.(1점)

- A. 순간적으로 잠시 ()
- B. 갑자기 돌연적으로 ()
- C. 무조건적으로 여지없이
- D. 무엇을 하기 전에 차라리 ()

[답안] D

[해석] 고유어 부사에 대한 의미 파악 정도를 평가한다. 능력 차원은 C급이다.

23) 이 글에서 유모아적으로 쓰인 표현 두곳을 찾아보라.(1점)

답:

[답안] ① 나는 그들이 모두 하늘을 향하여 목도를 올리고있으려니 생각했다.

② ... 오히려 눈이 있는 것을 걱정해야 할 판에...

[해석] ①은 심리와 행동의 괴리, 내면적인 공포심과 외면적인 경건함에서 오는 모순과 괴리를 통해 독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있다면 ②는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유머를 창출하고 있다. 능력 차원은 A급이다.

24) 이 글의 제④자연단락에 나오는 밑줄을 그은 구절의 뜻을 풀이하라. (3점)

[답안] 마음을 고요히 갈아 앉히고 사물을 정시하면서 사리를 판단하는 사람은 보고 듣는 것을 그르치는 일이 없고 외계의 현상에만 사로잡힌 사람은 지나치게 감정에만 치우치게 되는 나머지 판단을 크게 그르친다. (이와 상사한 견해가 나오면 점수를 줄 수 있다)

[해석] 글의 중심사상 내지 글에 깃 들어 있는 철리를 종합해 내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능력 차원은 B급이다.

다음의 글을 읽고 문제 25) — 28)을 해답하라.(10점)

깊은 밤, 뒤창문으로 내다보니 안개는 산봉우리를 덮어버렸다.

나는 아직 이 산봉우리의 이름을 모르고 있다. 내가 이 곳에 온날 저녁, 나는 바로 이 제일 높은 산봉우리에서 수정으로 다듬어놓은 듯한 불이 반짝이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때 내가 든 방안에는 전등이 없었다. 나는 저녁마다 어둠컴컴한 방안에 우두커니 앉아 반공에서 반짝이는 불빛을 보면서 어릴 때 읽어본 동화를 머리에 떠올리곤 하였다. 솔직히 말하면 세 층으로 정연히 배열된 불빛에 거무죽죽한 산봉우리가 어슴푸레 드러나는 장면을 볼 때마다 인간세상이 아닌 그 어떤 다른 세계를 떠올리지 않을수 없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낮에 다시 보니 평범하기 그지없었다. 줄지어

얇은 대어섯개의 산봉우리들은 높이가 엇비슷하였는데 맨 서쪽 산봉우리에 다락집이 한채 보이고 수목으로 뒤덮인 네 산봉우리들 중간에 솟은 한 산봉우리는 나무가 없어 누런 흙만 보였다. 그것은 흡사 사람의 머리에 생긴 허물자리 같았다.

이른 아침이 되니 아침안개가 이 모든 것을 덮어버려 조금 멀리서 서 있는 전선대마저 오간데 없었다.

해뜰 무렵, 아침해가 안개를 헤가르고 간신히 얼굴을 내밀었지만 그것도 한순간이었다. 이때에도 해빛은 가련할 정도로 암담하였다. 미구하여 숨같이 짙은 안개는 재차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따라서 온 대지는 형체조차 찾아볼수 없었다.

나는 이처럼 몰인정한 안개를 저주한다!

나는 찬바람과 빙설을 멀리하지만 안개에 비하면 이런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찬바람과 빙설은 사람을 죽일수도 있지만 오히려 사람들을 분투하도록 자극한다. 그러나 안개는 사람을 고민속에 빠뜨릴뿐이다. 안개는 당신을 진흙탕같이 새까만 어둠속에서 버둥거리게 하며 도무지 빠져나갈 궁리가 떠오르지 못하게 한다!

저녁녘이 되자 안개는 가는 소털비로 되어 온몸을 차분히 적셔놓는다. 서른자 안팎밖에 짙은 구름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바람이 멎었다. 트랙의 런롯에서 갑자기 메마른 런꽃대가 바르르 떨더니 새빨간 잉어가 물위에 떠올라 죽은 듯이 누워있었다.

나는 잉어의 기이한 움직임도 숨막히는 압박감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 아닐가 하는 생각을 했다. 나는 해빛을 갈망하면서 질풍폭우를 고대한다. 하지만 밍살스러운 안개속에서 내리는 명주실같이 잔잔한 비는 간단 없이 창문을 적시고 있다.

(모순 《안개》 1929년)

25) 이 글은 안개를 선택으로 써여졌는데 어떤 시간적순서로 안개가 자
욱히 낀 정경을 그렸는가?

답 :

[답안] 깊은 밤, 이른 아침, 해뜰 무렵, 저녁녘

[해석] 시간의 진척에 따라 사물의 변화를 세밀히 관찰하고 정확히 파악하는
학생들의 독서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능력 차원은 C급이다.

26) 자연현상으로서의 <안개> 의 최대의 특징은 무엇인가? 글에서
관련적인 구절을 찾아 설명하라.(3점)

[답안] <<숨같이 짙은 안개는... 형체조차 찾아볼수 없다.>> — 이는
안개에 작용과 특성에 대한 생동한 묘사이다. 안개는 모든 것을 볼 수 없
게 덮어버리기에 작자는 안개를 저주하게 된다.

[해석] 글의 주제와 관련되는 중요한 구절을 찾는 학생들의 감상능력을 평가하
고자 했다. 능력 차원은 B급이다. 학생들이 은유가 내포한 깊은 의미를 터득하고 글
의 주제를 해명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을 포착하는가를 볼 수 있는 좋은 문제이다.

27) 작자는 왜 잉어의 기이한 움직임에 썼겠는가? 글의 내용에 근거하
여 간단하게 개괄하라.(3점)

답:

[답안] 작가는 숨막히는 압박감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잉어
의 기이한 움직임을 묘사함으로써 사람들도 가슴 답답한 분위기를 깨고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고 암시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견해가 나오면 점
수를 줄 수 있다)

[해석] 형상에 내포된 은유적 의미를 파악하는 학생들의 감상능력을 평가하고

자 했다. 능력 차원은 C급이다.

28) 이 글의 중심에 대한 다음의 리해에서 합당하지 못한 두 항목을 찾으라.(2점)

- A. 봉건사회의 인민대중들이 세계의 큰산의 압박밑에서 고통스럽고 암흑한 생활을 하고있는 상황을 반영하였다.
- B. 대혁명이 저조기에 처했을 때의 사회정치의 암흑면을 반영하였다.
- C. 대혁명이 저조기에 처했을 때의 가슴속 고민과 아픔을 반영하였다.
- D. 암흑을 몰아내고 려명을 맞이하려는 대혁명전야의 작자의 기대와 동경을 반영하였다.
- F. 당시 모호한 입장을 갖고 어리벙벙해 있는 일부 사람들에 대한 작자의 염오와 저주를 반영하였다.

[답안] A, F

[해석] 작품과 시대와의 관계를 통해 작가와 작품의 내용을 투철하게 알고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했다. 능력 차원은 B급이다.

4. (16점)

여기서는 수험생의 병구를 고치는 능력, 문장 조직력과 및 기타 언어수양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9) 다음 명언의 빈자리에 원문을 써넣으라. (2점)

- ① 제자라 하여 반드시 스승만 못해야 하고는 도리는 없느니라. (— 한유 《스승의 도리를 말한다》)
- ② _____, 이것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자랑할만한 정신으로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지혜일 것이다. (— 고리끼 《시계》)

[답안] ① 스승이라 하여 반드시 제자보다 현명해야 한다

② 자기를 아낄 줄 모르는 것

[해석] 고급중외 격언, 명구에 대한 기억 및 식별 능력을 고찰한다. 능력 차원은 C급이다. 이 문제에서 내놓은 명언은 모두 고급중학교 《조선어문》 과목에서 뽑은 것이다. 하지만 명구로서는 좀 손색이 가며 《조선어문》이라는 과목성격을 염두에 둘 때 ①과 ② 중 우리민족 위인들의 명언을 하나 넣었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30) 다음의 레문의 문장격식에 맞게 그 아래의 빈자리에 알맞는 말들을 써넣으라. (4점)

A. 레문 : 비준을 거쳐야만 류동자금을 움직일수 있다.
비준을 거치지 않고는 류동자금을 움직일수 없다.

문제 : 당신이 가서 청해야만 그가 올수 있다.

B. 레문: 이러한 일을 내가 언제 달가와했댔는가?
이러한 일을 나는 달가와한 적이 없다.

문제 : 그는 사업경험이 적기에 일부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없다.

[답안] A. 당신이 가서 청하지 않으면 그는 올수 없다.
B. 그는 사업경험이 적은데 어찌 오류를 조금도 범하지 않겠는가?

[해석] 의문문을 서술문으로, 서술문을 의문문으로 고침으로써 다양한 문장 격식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능력을 고찰한다. 능력 차원은 D급이다.

31) 순희는 병환에 계시는 아버지의 침대머리에 아버지가 금해야 할 세 가지 사항을 써서 붙여놓았다. 읽어본 후 병집을 찾아 그 원인을 밝힌 뒤 옹계 고치라.(4점)

아버지가 금해야 할 세가지

아버지의 병은 뇌혈전입니다. 병이 낫자면 다음의 세가지를 금해야 합니다. 첫째로 금해야 할것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것입니다. 둘째로 금해야 할 것은 술을 마시지 않는것입니다. 셋째로 금해야 할 것은 너무 격동되거나 슬픔에 잠기지 않는것입니다.

병집원인:

옹계 고친 글:

[답안] 부정의 맞물림 관계에 주의하지 않아 뜻이 달라졌다.

... 담배를 피우는 것입니다. ... 술을 마시는것입니다. ... 너무 격동되거나 슬픔에 잠기지 않는것입니다.

[해석] 부정의 맞물림관계를 고찰한다. 능력 차원은 C급이다. 중국어와 한국어를 더불어 쓰는 가운데서 빚어진 폐단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이는 창의적인 출제라고 생각한다.

32) 다음의 풍자소품을 읽고 요구에 따라 해답하라. (3점)

서범경연을 보러 온 고국장더러 제시성을 띤 글을 남겨달라고 사람들이 청을 들었다.

《무엇을 쓴다?》 고국장은 붓을 들고 만족한 듯이 웃으며 말했다.

《아무것이나 다 됩니다. 국장님께서 제일 자신있는 글을 서보십시오.》

《그럼, 써본다?》

고국장은 한참 생각하더니 붓을 날렸다. 종이우에 고국장의 주먹같은 글자가 씌여졌다. 《동의합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놀라기도 하고 경탄하기도 하고 어리둥절하기도

하였다.

《몇글자 더 써보시죠. 아주 멋있습니다.》

누군가 빈정거리는 말투로 말했다.

요구 1: 내용에 알맞게 제목을 달라. (1점)

답:

요구 2: 이 글의 결말을 쓰되 고국장의 말로 되게 하라. (2점)

답:

[해답] 1은 《고국장의 봉변》

2는 《그것 참 딱한데...내가 잘 쓸 수 있는 글은 이것밖에는 없거든.》

(이외에도 풍자적 효과가 드러나게 해당하면 점수를 줄 수 있다.)

[해석] 소품의 내용을 개괄해 제목을 달고 결말을 보충해 글의 소품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능력을 고찰한다. 능력 차원은 B급이다. 관료층의 무식함을 고발한 것만큼 현실성과 비판성이 강하고 학생들의 예술적 상상력과 종합능력을 고찰할 수 있는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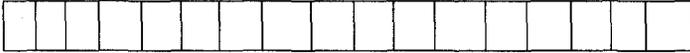
33) 다음의 소식을 읽고 그 내용을 간추려 15자 이내(띄어쓰기 포함)의 제목을 달아보라. (3점)

[대전=신화사통신] 6월 12일, 수요일, 비내림

4년동안 세계축구왕으로 군림하던 프랑스팀과 아르헨티나팀이 본회 월드컵소조경기에서 천길낭떠러지에 추락해 눈물의 바다를 이뤘고 처녀출전국으로 16강 진출의 역사를 창조한 세네갈은 축제의 물결로 출렁거렸다. 세계축구무대의 새풍경선이라 할수 있는 이번이다.

승패를 예측키 어렵고 절대적인 강자가 없으며 강팀과 약팀의 격차가 크게 좁혀져 있는 것이 본회 월드컵의 특징이다.

프랑스월드컵때에는 소조 제2경기가 결속된 후 16강 진출이 확정된 팀이 6개나 되었지만 본회 월드컵에서는 브라질과 에스빠냐 2개팀밖에 안되었다. 대부분 소조의 경기는 서로 물고 물려 제3륜경기를 거쳐야만이 16강 진출을 가리게 되었다.



[해답] 세계축구수준 전력균등화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축구 수준 차이가 갈수록 좁혀지고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점수를 줄수 있다)

[해석] 글의 내용과 주제를 종합해 제목을 달수 있는 능력을 고찰한다. 능력차원은 C급이다. 글의 체재는 서로 다르나 제 32) 문제와 대동소이해 별로 의미가 없는 중복된 문제로 된 것 같다. 그리고 이 글의 제1과 제3 자연단락의 논거부분을 수험생 스스로 개괄해 《올해 월드컵 이번 속출》 이라고 할 수도 있어 물의를 빚을 소지가 크다.

5. 작문(60점)

다음의 두가지 재료가운데서 한가지를 선택하여 요구에 따라 글을 쓰라.

재료 1:

북방에 사는 한 사람이 남방에 가서 벼슬을 하게 되었다. 한번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식탁에 생전에 본적 없는 물건이 올랐다. 그것을 입에 넣고 씹으려 하였으나 어찌나 딱딱한지 도무지 씹을수가 없었다. 그것은 마름이었다. 곁에 앉아있던 동료가 마름은 껍질을 벗겨버리고 속만 먹는다고 귀뜸하자 그 사람은 《그건 나도 안단 말이야. 껍질채로 먹으면 속열을 칠수 있거든.》 하고 동료의 말을 중동 무이해버렸다. 동료는 계속하여 북방에도 마름을 심는가고 물었다.

《심구말구. 앞산과 뒤산이 온통 마름천지요》 북방사람은 신이 나서 대답하였다.

레브 톨스토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물라서는 두려울것도 해로울것도 없다.

그 누구나 모든 것에 대하여 다 알수는 없기 때문이다. 진정 두렵고 해로운 것은 모르면서도 아는체 하는것이다.»

북방사람이 남방에서 올바르게 벼슬을 하였겠는가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 [마름] 늪 같은데서 절로 나거나 심어서 자래우는 1년생 풀의 한가지 또는 그 열매.

요구: ① 주제가 선명하고 상상력이 합리해야 한다.

② 자기의 경력, 체험, 견해와 신념을 쓸수도 있고 이야기 등을 쓸수도 있다. 쓴 글의 내용은 반드시 주어진 글의 주장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③ 제목을 자체로 달아야 한다.

④ 시, 희곡을 제외한 기타 체재의 글을 모두 허용한다.

⑤ 글자 수는 1000자이상이어야 한다.

재료 2

생활을 어찌 보면 하나의 커다란 그물(網)이라고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 자체도 이 그물속에서의 변화무쌍한 유희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 생활속의 그물, 여기에는 눈에 보이는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것도 있다. 또 유익한것도 있고 해로운것도 있다. 생활의 그물(網)을 화제로 하여 한편의 글을 지으라.

요구: ① 자기의 경력, 체험, 견해와 신념을 쓸수도 있고 이야기를 쓸수도 있다.

② 제목을 자체로 달아야 한다.

③ 시, 희곡을 제외한 기타 체재의 글을 모두 허용한다.

④ 글자 수는 1000자이상이어야 한다.

[해석] 재료작문으로서 두 개의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선택의 여

지를 남겨 주었다. 두 개의 자료는 모두 수험생들에게 익숙한 현실성을 띤 사상과 내용을 담고 있어 응시자들에게 상상과 연상의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또한 시나 회곡을 제외한 다양한 문체를 다룰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첫 번째 자료는 주제가 한정되어 있어 개성 있는 글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차단해 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이 늘 다루는 주제(허심하면 진보하고 교만하면 낙후해진다)여서 외워 쓰거나 모방작이 나올 우려가 있다. 그리고 두 개의 자료를 제시했고 각각 구체 요구도 다른 만큼 채점에서 형평성을 잃을 소지가 많다.

본 시험지 작문채점 표준과 특성은 다음과 같다.

- (1) 《작문등급채점표준》을 보면 기초등급(50점)과 발전등급(10점)으로 나누어 채점한다.
- (2) 기초등급채점에서는 주제, 내용, 언어, 문체를 중점적으로 보며 좋은 것(50~41점), 비교적 좋은 것(40~31점), 일반적인 것(30~21), 차한 것(20~0점) 등 4개 등급으로 나눈다.
- (3) 발전등급채점에서는 주제나 내용이 심각하고 언어가 생동하고 풍부하며 창의성이 있는 등 10개 조목가운데서 어느 한가지라도 특출하면 만점 10점까지 줄 수 있다.
- (4) 띄어쓰기, 철자, 문장부호에서 틀린 곳이 많으면 (20곳 이상) 4점을 깎고 일반적이면 (10~9곳) 2점을 깎으며 틀린 곳이 많지 않으면 (9~5곳) 1점을 깎는다. 지면이 어지럽고 글씨가 난잡하면 1점을 깎는다.
- (5) 글자가 부족하면 부족한 글자 수 50자에 1점을 깎는다.
- (6) 기성작품을 그대로 옮겨 썼을 경우에는 《기초등급》의 차한 범위에서 점수를 매기며 《발전등급》에서는 점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3. 출제 특성과 문제점

《2002년 보통고등학교초생전국통일고시 조선어문(길림성전용)》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 평가방식의 실태와 특성을 아래와 같이 귀납할 수 있겠다.

《조선어문》 출제의 이중문화구조적 성격;

시험사회학적으로 본다면 시험은 수험자가 살고있는 해당 사회나 시대의 문화구조를 반영하거나 제시한다. 첫째로 《조선어문》 출제는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시험중심의 지도 밑에 진행되며 대다수 중국인 수험생들이 치르는 《어문》 출제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둘째로 《조선어문》 출제의 근거는 수험생들이 조선족학교에서 배우는 《조선어문》 교과서인데 이 교과서에서는 우리민족의 작품들과 거의 같은 비중으로 중국의 작품들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그에 기초한 《조선어문》 출제는 이 이중문화구조를 반영·제시하고 있다.

《조선어문》 출제의 《3+X》 원칙;

2002년 대학입시에서는 처음으로 전국적인 범위에서 《3+X》 패턴을 실시했다. 1999년 초에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에서 내놓은 《보통고등학교 초생시험제도개혁을 진일보 심화할 데 관한 의견》에 의하면, 《3+X》란 대학입시를 진행하는 가운데 고등학교에서 인재를 선발하는데 유리하고 중학교단계의 소질교육을 하는데 유리하며 대학교의 경영자주권을 확대하는데 유리함을 말한다. 이에 따라 《조선어문》 출제에 있어서도 그 내용에 대한 개혁의 폭을 늘리며 수험생의 능력과 소질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재관적인 문제를 줄이고 주관적

인 문제를 늘렸으며 출제의 사변성(思辨性)과 실용성을 높였다.

《조선어문》 시험의 내용과 형식적 특성;

조선어의 어음, 억양, 어휘, 문법, 수사법, 문학감상능력, 습작능력 등 전반 조선어문지식을 망라하고 있으며 다양한 출제형식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조선족 수험생들의 문화지식구조와 시야를 감안해 교묘하게 문학, 역사, 철학을 결합해 그들의 조선어문 능력과 소질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문학작품을 비롯한 번역문을 너무 많이 다루고 있는가 하면 12)의 경우와 같이 일부 문제는 출제 자체가 틀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문제(언어영역)와의 비교를 통해 《조선어문》 시험의 문제점을 찾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작업을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참고 문헌

- ① 吉林省招生委員會辦公室: 《2000年普通高等學校招生全國統一考試詩朝文試題合訂本》
- ② 王杰: 《一個真實的故事, 一段難忘的歷史》 (“中國高考”, 2002年 第9期)
- ③ 劉凡: 《論試題的合理性》 (“中國考試”, 2002年 第6期)
- ④ 吉林省招生委員會辦公室內部資料: 《2000年普通高等學校招生全國統一考試詩題與參考答案彙編》
- ⑤ 姜有榮: 《2002全國高古考語文試卷逐題詳解》 (“考試”, 2002年 第9期)
- ⑥ 馬金科: 《對“3+X”高考改革中注重能力和素質考查的思考》 (“中國考試”, 2000年 第2期)
- ⑦ 張偉明: 《基礎等級與發展等級—談高考作文新要求》 (“中國考試”, 2000年 第9期)
- ⑧ 김홍: 《세기교체를 맞는 기꺼운 시험개혁의 움직임—2000년 길림성대학입학 조선어문작문시험문제를 평함》 (“중학생”, 2000년 제11기)

■ Abstract

Current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of Evaluation Method
of " Korean" Exam in China

Kim, Ho-woong

"Regular Colleges and Universities Entrance Exam Korean" not only plays an important role as the element which influences the result of the exam, but also functions as the commanding mark of the entrance education as it is the sum of the 12 years' learning of Korean from primary school to high school. Being the national uniform entrance test, " Korean" Exam inevitably has the greatest authority and mystery. The content of the " Korean" Exam paper is secretly produced by the experts who are elected and chosen by the Education Institute in China.

In this paper, the author first introduced the pattern of the exam and laid out detailed explanation about it, then he summed up the current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of evaluation method of the exam.

Characteristics of Dual-Cultural Structure of Korean Exam

From the angle of test sociology, Exams reflect the society and the cultural structure in which exam participants live. Firstly, " Korean" Exam is carried on under the command of the Exam Center of Education Institute in P.R.C. It is also affected by the pattern and content of "Chinese" Exam which most of the Chinese students have every year.. Secondly, " Korean" Exam is based on the "Korean"

textbook, which contains many translation works from Chinese writings. Therefore, the "Korean" Exam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dual-cultural structure.

《3+X》 Principle in "Korean" Exam

In Regular Colleges and Universities Entrance Exam in 2002, 《3+X》 Principle was implemented in the nationwide for the first time. According to the 《Suggestions on the further intensification of Regular Colleges and Universities Entrance Exam reform》, 《3+X》 refers to three benefits. First, it is beneficial to the election of talents. second, it is beneficial to the quality education during the middle school education step. Third, it is beneficial to the enlargement of the Universities' self-determination of the management. Because of this, there are also some changes in "Korean" Exam paper so that it can evaluate students' ability and quality correctly. The reforms in "Korean" Exam are that in exam paper, objective questions are reduced, while subjective questions are increased, and intellectual enquiries and practical applicability are enhanced.

Characteristics of Content and Pattern of "Korean" Exam

"Korean" Exam contains pronunciation, accent, vocabularies, grammar, rhetorical expression, literary appreciation, writing and other knowledge of Korean language. The pattern of the questions tend to be diversified. "Korean" Exam also combined literature, history and philosophy which penetrated Korean students' cultural structure in order to evaluate their ability and aptitude in Korean language. But there still exist some problems, such as too many translation works from Chinese writings are used and some questions in the exam paper like 12) are not correct themselves.

Compared with the "Math" Exam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Entrance Exam in South Korea, some problems in "Korean" Exam have to be researched and solved later on.